

사례보고

민주화운동 사진DB구축: 정태원 컬렉션 사례

Building Database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Case of Tony Chung Collection

윤혜선(Hyeseon Yun)

E-mail: sunny@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논문접수 2021-02-08
최초심사 2021-02-08
게재확정 2021-02-09

ORCID

Hyeseon Yun
<https://orcid.org/0000-0003-4612-6306>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기록을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글은 오픈아카이브에 더욱 풍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료관에서 진행한 사진DB구축사업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국내 다양한 아카이브가 사진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19~2020년에 진행한 정태원 사진 DB구축사업의 과정과 의의,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s archives offer its collection of records about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through "Open-Archives," allowing users to read and use them conveniently. One particular article aimed to promote an overall understanding of its photo database to offer more promising services through the "Open-Archives." Similarly, many different archives hold photographic records, but they have difficulty releasing them to the public.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troduced the case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s project of building a photo database for Tony Chung in 2019-2020 to improve its establishment process, significance, and future tasks.

Keywords: 사진DB구축, 정태원, 사진디지털아카이브, 민주화운동 사진, 오픈아카이브
Photo database-building, Tony Chung, Photographic digital archive, Photograph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Open archives

1. 들어가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사료관(ARCHIVE)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디지털화,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 설립 초기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민주화운동 기록의 유실, 훼손을 막고자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나 단체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기관, 단체 등 839명(개)의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약 85만 건의 민주화운동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다. 현재도 (가칭)민주인권기념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결락 사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료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사료관은 기록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아키비스트와 협업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집된 기록은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기, 항균제 등의 전문 설비를 갖춘 보존서고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순차적인 정리와 평가를 마친 후에 사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기록을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아카이브이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관련 기록을 생산하거나 소장,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 민주화운동 연구자와 교육자,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대상자, 그리고 문화콘텐츠 종사자 등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한다. 오픈아카이브는 국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기 수집 사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픈아카이브의 이용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수집된 사료를 정리하고 등록하는 민주화운동 사료 DB 구축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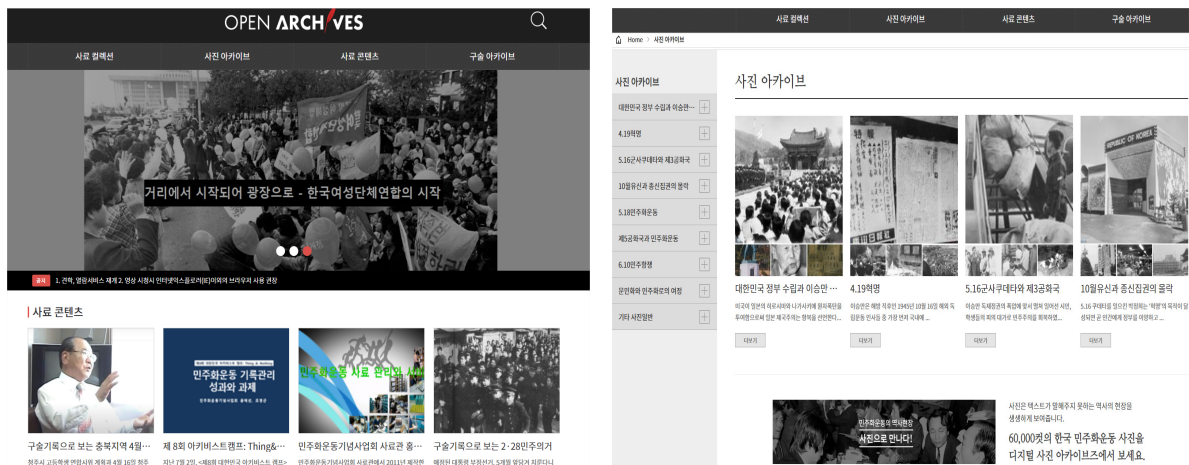
2. 민주화운동 사료DB구축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4~2005년,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국가DB사업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 사료DB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집한 약 85만 건의 사료 중 약 60만 건의 사료가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 이 중 약 50%의 사료는 원문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등록된 자료의 유형을 보면 주로 성명서, 편지, 메모, 회의록 등의 문서기록이 약 88%의 비중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도 현대사 사진 기록이 10%를 차지하고, 일부 음성영상류, 박물류가 있다(윤혜선, 2020). 민주화운동 사료DB구축사업은 설립 초기 10여 년간 지속하였으나 예산 감액 등의 사유로 중단했다가 내·외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2019년부터 재개하였다. 2019년부터는 등록 대상 사료의 주요 형태에 따라 문서류 중심의 미정리사료구축사업과 사진필름류 중심의 사진DB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정리, 스캔, 선별, 기술(description), 데이터 업로드 등의 전반적인 업무 공정은 유사하나 사진필름류의 기술 과정은 아키비스트가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한다. 문서류의 경우 일시, 장소, 생산자 등의 정보가 내포되고 있어 사료 정보를 기술할 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반면에 사진필름류의 경우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촬영했던 원작자나 당시 시대적, 상황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사료 정보를 기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이보다 앞서 사진 원저작자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포함된다.

오픈아카이브는 사건별 또는 연대별로 다양한 기록을 묶어서 제시하는 ‘사료컬렉션’, 한국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 사진 기록으로 구성된 ‘사진아카이브’, 이야기, 동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을 가공해서 보여주는 ‘자료콘텐츠’, 구술 기록을 영상으로 제시하는 ‘구술아카이브’ 등 총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접근하는 영역은 압도적으로 사진아카이브이다. 사진아카이브에 등록된 약 6만 컷의 사진은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다방면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에 연구자, 교육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출판사 등 일반 시민도 오픈아카이브 사진아카이브에 접속하고, 사진 자료를 활용한다. 자료관은 각각의 사진 자료의 원작자와 별도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 계약을 맺어 오픈아카이브에 서비스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박용수 컬렉션>과 <k 신문사 컬렉션>이다.

<박용수 컬렉션>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보도 실장을 지낸 박용수가 1970년대~1990년대 말까지 촬영한 필름들로 주로 민주화운동 및 행사, 인물 위주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중복되거나 유사 이미지를 제외한 1만 5,000여 컷의 필름들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대상으로 삼았다. <k 신문사 컬렉션>은 k 신문사 창립 당시부터 2006년까지 신문 게재를 목적으로 촬영한 800만 컷에 이르는 사진 및 필름 중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민주화운동의 배경이나 당시 사회상,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기타 사진 3만 2,000여 컷을 선별하였다(김명훈, 현종철, 2006). 그리고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3·15의거 현장 및 관련 행사 사진 470여 컷과 한림대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1990년대 강원도 지역 대학생 민주화 시위를 촬영한 <김태현 컬렉션> 600여 컷 등을 확보하고 있다. 자료관은 사진 원작자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민주화운동 및 현대사의 다양한 사진 기록을 점차 확보하여 오픈아카이브 공개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



<그림 1> 오픈아카이브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사진아카이브 (출처: <https://archives.kdemo.or.kr>)

3. 정태원 컬렉션 사진DB구축사업

3.1 정태원 컬렉션의 한국 현대사 사진사적 가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9년 정태원 전 기자가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현장 및 관련 행사 사진 필름과 인화 사진을 위탁하면서 사용권을 소장하게 되었다. <정태원 컬렉션>은 양이 많고 디스크립션이 미비하여 사진

분류 및 정리 작업을 통해 500여 컷을 선별하여 2017년에 오픈아카이브에 등록했다. 그리고 2019~2020년에 잔여 필름과 인화 사진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사진 DB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원작자 정태원(Tony Chung)은 1977년부터 UPI 통신사 한국지국 외신부장으로 근무했으며, 1985년부터 1994년 퇴임할 때까지 영국 로이터(Reuters) 통신사 한국지국 사진부장을 역임한 베테랑 사진기자이다. 일선의 기자로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록하였으며, 국내 기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야당 정치인이나 반체제 인사를 취재해 그들의 동정을 전 세계에 알려 한국 민주화에 대한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7년 6월에 촬영한 연세대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친구의 부축을 받던 한 학생의 사진은 6·10민주항쟁의 기폭제이자 아이콘이 되었다(정태원, 2013).

원작자별로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사진 기록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k 신문사 컬렉션>은 독자에게 민주화운동 현장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적 관점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원작자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무관하며, 심지어는 정권의 시각에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도 보인다(김명훈, 현종철, 2006). 이에 비해 민통선 보도 실장으로 활동한 박용수는 주로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시각에서 시위 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박용수 컬렉션>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현장 기록이 많다. 그리고 정태원은 외신기자로서 국내 언론사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했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각적 참여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전체 사진을 커버할 수 없어 주로 ‘해외에서 궁금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국내에서 일어나는 국제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을 진행했다. 그렇기에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큐레이션디엑스, 2020).

<정태원 컬렉션>은 이한열 피격사건과 같은 중요한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등 국제적 스포츠 행사, 남북문제의 사건 등이 수록되어 있어 한국 현대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사진이 많다. 이러한 사진을 통해 오픈아카이브가 한국 현대사의 사진 기록의 관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풍부한 분야의 사진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3.2 정태원 컬렉션 사진DB구축사업의 추진과정

3.2.1 필름 및 사진 원문 사료 스캔

정태원 컬렉션 DB구축사업은 2019~2020년 2개년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아카이브에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 자료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2019년은 원문 사료를 스캔하는 작업을 우선하였다. 정태원이 촬영한 35mm 현상 필름 5만여 컷과 인화지 및 복사물 사진 3만여 컷이 그 대상이었다. 대상 사진은 앨범별로 목록을 정리하고 스캔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존용 원본 사진은 임시 아이디 규칙에 따라 파일 네이밍 작업을 하여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사료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사료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향후 보존용 원문 이미지 데이터와 보존서고의 사료를 매핑하여 실물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스캔 파일은 무손실 보존용 파일(TIFF)과 서비스용 파일(JPEG)로 구분하여 변환하였다.

3.2.2 1차 선별

2020년은 사진 선별과 디스크립션 작업을 위해서 원작자와 사진 전문가, 민주화운동 연구자가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1차 선별 작업은 정태원 사진 중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사진이나 저작권 미해결 사진 등을 배제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종 선별 과정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원본 스캔본 87,000컷을 ‘민주화운동’,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 ‘88년 서울 올림픽과 스포츠 행사’, ‘생활과 문화’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사진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고 선별했다. 선별 원칙으로는 역사성, 미학적, 법적 가치, 기록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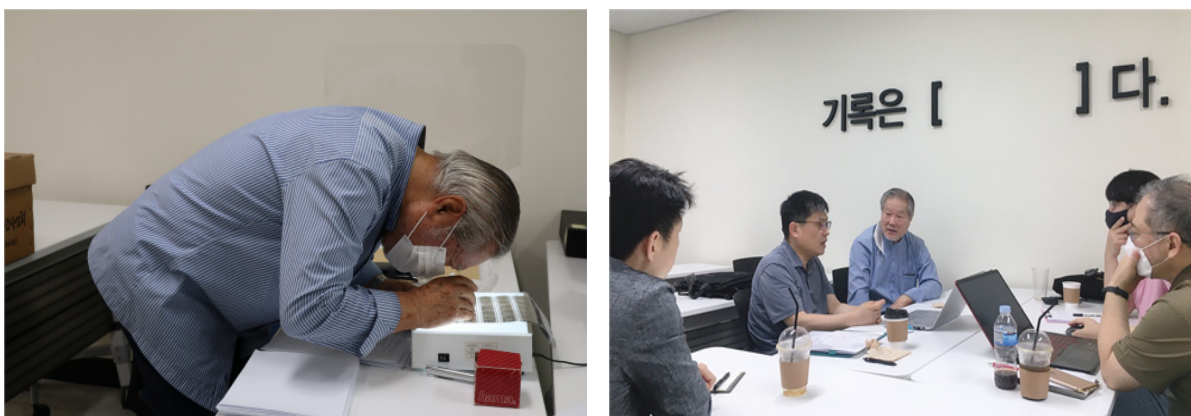
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담아냈는지, 미학적으로 아름다운지, 저작권과 사용권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이라는 기록의 4개 속성을 함께 고려했다(큐레이션디엑스, 2020). 최종 선별 작업을 위한 기본 자료로 10,000컷을 뽑고, 선별 작업 시행 후 작업 진행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 기본 자료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여 컷을 선별했다. 그리고 오픈아카이브에 공개할 사진 1,368건을 재선별하였다. 또한 향후 전시나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진 100컷을 베스트 컷으로 선별하였다. 평가 선별 시 사진 속에 수록된 이미지의 주관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작업에도 사진 전문가와 민주화운동 연구자가 협업하여 진행했다.

3.2.3 서비스데이터 구축

1차 선별한 사진 1,368컷을 대상으로 중복되는 사진 등을 제외하여 서비스 대상 사진 1,322컷을 최종 선별하고, 이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오픈아카이브 서비스 분류 체계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디스크립션 작업은 표제, 생산일, 사진 설명, 주제어 등 기본적으로 오픈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였다. 문헌 분석을 위해 민주화운동 연구자가 민주화운동 사건사 및 정치사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과거 신문 아카이빙 자료, 주요 뉴스 검색, 이미지 검색 등 기초 조사를 통해 선별된 사진 내용을 일차적으로 파악했다. 문헌이나 기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원작자, 연구자, 아키비스트가 참석한 디스크립션 회의를 통해 해당 사실과 맥락을 점검했다. 특히 취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원작자 인터뷰를 통해 사진의 맥락과 원작자의 관점을 파악하면서 사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진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고령의 원작자가 기억하지 못 하는 일도 발생했다. 따라서 기억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연구자가 2차 조사 연구를 통해 사료 정보를 기술했다. 더불어 사진별로 주제어(색인어)도 추출하여 이용자의 검색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오픈아카이브 이용자가 사진을 이해하기에 디스크립션만큼 분류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사진의 분류 작업 또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주화운동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오픈아카이브 사진아카이브의 서비스 분류체계는 현재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 ‘4·19혁명’,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10월유신과 종신집권의 몰락’, ‘5·18민주화운동’, ‘제5공화국과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문민화와 민주화로의 여정’, ‘기타 사진 일반’ 등 8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된다. 오픈아카이브 분류체계에 맞게 서비스 대상 1,322컷의 사진 기록이 위치할 분류를 각각 지정하였다.



〈그림 2〉 디스크립션 회의 과정

3.2.4 사진 데이터 변환 작업

최종적으로 선별된 정태원 사진 1,322컷은 서비스용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원본에 포함된 캡션 이미지와 여백을 삭제하고 보정하는 등 서비스용 이미지로 변환하고 지정된 위치에 워터마크 처리를 했다. 최종적으로 품질 검수를 통해 사료관리시스템과 오픈아카이브에 메타데이터와 이미지를 업로드하였다.

4. 나가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정보와 콘텐츠가 담긴 디지털아카이브, 오픈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사료관이 20년 동안 수집한 민주화운동 사료와 관련자 구술은 지속적인 DB구축사업을 통해 오픈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균형 잡힌 현대사 자료의 확보 측면에서 2019~2020년 진행한 정태원 컬렉션 사진DB구축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외신기자 정태원은 1979~1993년을 살아간 일반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사,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다양한 이슈를 다 포괄하는 사진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처럼 사료관은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장면을 담은 사진 기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료DB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식자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사진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현재 사료관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 중 미 서비스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결하는 것이다. 매뉴스크립트 기록은 정리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료가 기증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집 당시 사진 기록의 원작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진 기록의 공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진 원작자와 별도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 계약을 통해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사용권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또한 사진아카이브의 복잡한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배열하고 접근과 활용의 용이성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명훈, 현종철 (2006). 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 사진 기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7(3), 139-163.
<https://doi.org/10.1633/JIM.2006.37.3.139>
- 윤혜선 (2020).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52(8월호), 1-15.
- 정태원 (2013). 서울말 사진종합: 자유와 민주화를 향한 대장정. 서울: 눈빛.
- 큐레이션디엑스 (2020). 서비스데이터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웹사이트]

오픈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archives.kdemo.or.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 Tony (2013). Photographs from seoul: The long journey towards freedom and democratization. Seoul: Noonbit.
Curation DX (2020). Service Data constructing Project Completion Report.

- Kim, Myounhun & Hyun, Jongchul (2006). A Study on Constructing of Photographic Digital Archive: Focusing on the Photograph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7(3), 139-163.
<https://doi.org/10.1633/JIM.2006.37.3.139>
- Yun, Hyeseon (2020).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Collecting Democratization Movements Historical Documents. *Issue and Review on Democracy*, 52(8), 1-15.